

實測值 總高約五·五m  
基壇部(高七〇cm)

- ① 中石高二四cm 橫幅二二〇cm(一邊)  
② 甲石高(厚)二〇cm 橫長二三〇cm(一邊)  
塔身部

初層 ① 屋身高一五〇cm 幅一四三cm ② 屋蓋高四五cm 幅二五五cm  
(받침) 第一級……厚一六cm 長一五五cm 第二級 厚一六cm 長一八五cm (以下省略)。

註

① 大原利武論文「三國時代の石塔た就いて」朝鮮と建築第一〇四號)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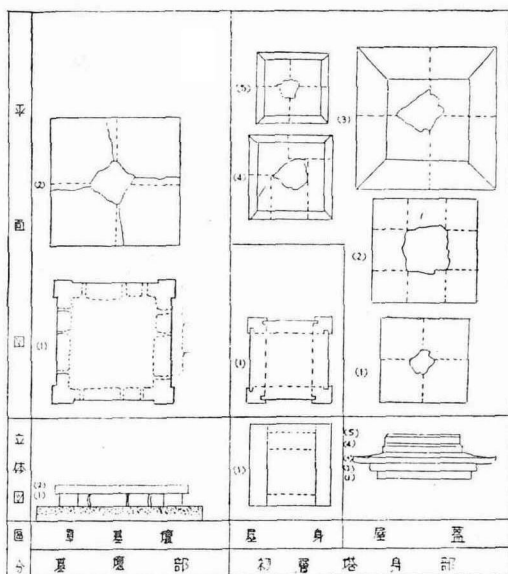
高裕燮 遺著 韓國建築美術史草稿「百濟의 建築」條 三五面參照。

杉山信三 著 朝鮮の石塔一〇〇面 參照。

考古美術同人會刊「韓國塔婆目錄」全北沃溝郡條。

② 竹山里三層石塔之多數石片으로 建築되었는바 基壇中石以上相

第六卷 第三·四號 通卷五十六·五十七號



## 서울大博物館 所藏 木造樣式的 石塔材

申 榮 勳

輪殘存部까지 總九十三個의 石片으로 組合되었었다. 基壇部가 十六個 初層塔身이 三十六個, 二層塔身이 二十二個, 三層塔身이 十五個, 相輪部가 四個로 이들 石片의 數와 規格이 統一性과 均齊美를 잃어 若干의 疎忽한 感覺을 주고 있다.

一九六一年夏 黃壽永教授 敎示에 따라 鄭明鎬氏와 함께 國立서울大學 校博物館所藏 木造建物樣式의 石塔材 一片을 調査하였었다.

塔材는 何層인지 不明한 蓋石部片인데 蓋石은 半破에 가장고 殘存部 分도 二隅端과 軒端이 破損되어 全貌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다 行히 近來이 蓋石과 比較考察될만한 새로운 資料가 出現함에 힘을 얻어 이 蓋石을 간단히 紹介하고자 하는 바이다.

蓋石(現高 〇·三二五尺(一邊長(A邊) 一·〇二尺 他邊長(B邊) 〇·六二尺)은 花崗岩製, 매우 精緻하게 各部를 彫成하여서 손쉽게 細部를 判別할 수 있다.

蓋石은 四邊이 同一한 正方形의 規格이었겠으나 지금과 같이 破損되어 各邊의 長이 各자가 되고 말았다. 蓋石은 下層塔身위에 놓여 上層塔身을 받도록 된 것으로 一般型塔과 同一한 것이다.

蓋石上面의 塔身받침 部分에는 方形孔을 穿孔하였는바 半破됨에 따라 지금은 一邊이 없어진 卍字形의 모습을 남기고 있다(圖面一參照)이 塔身받침을 中心으로 하여 三면에 瓦列이 配列되었고 各隅에 隅棟이 造出되어 있다. 瓦列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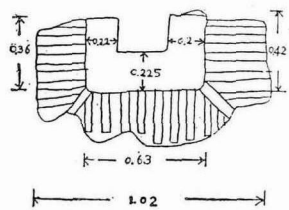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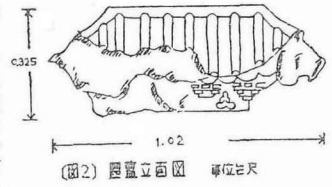


圖 1. 屋蓋石平面 單位는 尺



(圖二) 瓦蓋立面圖 單位是尺

軒端에는 莫斯瓦를 添葺한 모습이 보이고 그 曲端은 椽木의 椽端面에까지 내려와 있다.

椽木의 心心距離는 七分內外, 椽木長은 대략 九分五厘, 추너는 역시 椽木보다 굵게 표현하였다.

처마는 흔치마로 長椽만이 걸렸고 浮椽은 없다. 이러한 점은 浮屠를 이흔히 浮椽을 造出한 것과 相考할만한 題材라고 생각한다.

공포는 귀공포와 柱心공포로 구성되었다. 全貌를 볼 수 없어 斷言할 수는 없으나 殘存部分에서 推考컨데 左右 귀공포와 柱心공포 二組로 構成된——即 四面이 各三間을 表現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공포는 各制約으로 弛緩되어 있어 異形인듯이 보이나 浮石寺無量壽殿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柱頭로부터 짜올리는 一出目的 公포를 만 들려는 意圖를 갖고 造出한 것인듯 하다.

귀공포와 柱心공포와의 間地에는 化佛을 一軀씩 浮彫하였다. 坐佛로서 結跏趺坐하였고 合掌하는 듯한 姿勢를 취하고 있다.

一般型石塔의 屋蓋石과 同一한 樣式을 基調로 하고 거기에 各木造樣式을 加味한것은 海雲臺觀光호텔 前庭에서 수습된 石塔材(今在慶州博物館)와 거의 같은 意味를 갖고 있다. 이 외에 이같은 手法을 우리는 鐵銅製工藝塔 등에서 發見할 수 있는데 이들은 반드시 比較檢討되어야 할 줄로 생각된다. 作品의 製作年代는 대략 高麗로 推定된다.

夫瓦는 一邊에 대략 九列內外이고 葺形은 대충 半圓形을 보이고 있다. 夫瓦의 半徑은 一定치 않으나 四分의 平均値를 갖었고 女瓦의 半徑은 五分內外의 程度이다. 夫瓦列의 心心距離는 九分음이요 瓦列의 長(落水面의 길이)은 비교적 성한 부분에서 〇・二三乃至 〇・二四尺을 檢尺할 수 있다. 隅棟의 확실한 길이는 알 수 없고 그 幅은 대략 六分內外로 夫瓦幅보다 굵게 표시하였다. 瓦列의 端——即

### 唐浦前洋勝捷之圖

孟仁在

原題는 「甲辰六月 唐浦前洋勝捷之圖」로 畫面의 上邊에 攄으로 篆書하였다.

甲辰六月은 宣祖三十七年(一六〇四)六月 唐浦는 지금 慶南 統營郡 山陽面 三德里 統營半島의 最南端部이다.

七年에 걸친 倭亂이 宣祖三十二年에 끝난지 五年後인 甲辰六月 唐浦 앞바다에 出現(朝鮮史 宣祖三十七年六月)한 大型倭船一隻을 邀擊, 彼我 戰船이 攻防戰을 展開 勝利한 것을 記念한 海戰圖로서 當時이 海戰에 參加했던 魯鴻, 魯認 두 將軍의 門中에 傳承되어 온 것으로 傳한다.

지금은 光州 武光祠 錦溪圖書館 保存品이며 全南道立博物館에 陳列되어 있다.

畫幅의 全長 一一三・五cm 幅 六七cm 中間을 橫斷한 上部畫面의 長 六四cm 幅 六七cm 絹本淡彩, 下半은 이에 參戰한 統制使以下 諸將들의 階位, 姓名을 墨書한 人名錄이다.

그림에 나타난 統制營管下 戰船의 數는 二十餘隻, 前面, 左右로 散開하여 中央의 倭船一隻을 包圍하였고 그 中 五隻이 倭船의 前, 側面으로 肉薄하고 있다. 船上의 이쪽 兵士들은 大部分 활시위를

